기업 사회공헌 ②

한국전력공사 포천지점 사회봉사단

이영승 단장

이광열 간사

러브펀드+매칭그랜트 기금 외에도 주민 위한 사업 실시

기금 및 물품지원 · 노력봉사 · 1단1촌 자매결연 활발하게 추진

'세상에 빛을, 이웃에 사랑을'이라는 슬로건 아래 발족해 11명의 단원에서 30명의 봉사단으로 성장한 한국전력공사 경기북부지사 포천지점 사회봉사단(단장 이영승, 이하 사회봉사단)은 러브펀드 가입구좌수 295구좌, 가입인원 61명, 조성금액 2천284만4천원, 집행금액 1천918만7천원으로 현재 집행율 84%를 보이고 있다.

사회봉사단은 단원 및 기금확충으로 봉사역량을 강화하고 노력봉사와 물품지원 조화로 봉사효율 배가, 효율적인 홍보로 나눔경영 이미지 구축을 목표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의 사회봉사활동은 미아찾기, 소년소녀가장돕기, 복지시설봉사, 자연보호 활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사회봉사단은 지난 2004년 발족해 봉사활동에 필요한 재원은 지점 전 직원의 자발적 참여기금인 '러브펀드'에 가입해 모금한 기금과 여기에 비례해 1:1로 회사측에서 출연하는 '매칭그랜트'로 충당된다.

사회봉사단의 주요활동실적을 보면, 기금 및 물품지원 실적으로는 지난해 4월26일 영중면 양문 1~4리 독거노인 및 장애우를 돕기위해 150만원 상당 생필품을 지원했으며 6월22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5세대를 대상으로 32만7천원 상당의 생필품을 지원하기도 했다. 8월17일 내촌면 진목리 나눔의 집을 방문해 50만원 상당의 생필품과 김장김치를 지원했으며 9월22일 이동면 김영임 등 14호를 대상으로 200만원 상당의 생필품 지원과 조명기기 교체작업을 실시했다.

올들어 4월20일 내촌면 진목리 나눔의 집 방문해 50만원어치 난방용 주유권을 지원했고 4월26일 선단사랑의 집을 방문해 전기시설 점검 및 조명기기 등 전기설비 교체에 166만3천910원을 들였다. 5월5일 어린이날을 맞아 공설운동장에 모인 어린이들에게 기념품을 지급하고 이름표 및 휴대용 티슈를 제공하기도 했다.(60만원) 6월28일 한국보훈의 달 사회봉사 활동으로 생활등급 10등급 이하 국가유공자 4명을 대상으로 3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지원하고 전기설비를 점검했다. 9월11일 한가위 특별사회봉사활으로 더블어 실버홈과 노아의 집을 방문해 10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지원하고 전기설비 점검 및 주변환경개선작업도 실시했다.

노력봉사로는 설맞이 대청소, 장애우 거주시설 봉사활동, 전기공사협회 합동 수해주택 시설점거 및 교체, 사랑의 김장담그기 봉사활동, 국토대청결운동 대청소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 1단1촌 자매결연사업으로 포천시 영중면 금주2리에 단장을 비롯한 14명이 2개조를 구성해 부족한 농촌일손을 도와 못자리 만들기 봉사활동을 시행하고 지역특산물 팔아주기 등 직원에게 상시 홍보하고 있다.

앞으로도 사회봉사단은 땀 흘리고 시간을 할애하는 실천적 봉사활동을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전개하여 진정 남을 도울 수 있다는 나눔의 기쁨과 행복을 느끼는 소중한 시간이 되고 건전한 사회건설과 기업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데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이다.

사회봉사단의 이같은 노력외에도 한국전력공사 포천지점은 한국전력공사 전주에 설치한 포천시 공가가로등 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시행하여 불량설비 일제정비 및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지난 6월18일부터 7월10일까지 포천시 지역 공가가로등 5천여개소 중에서 1천74개소를 대상으로 가로등 점등상태, 전력선 인입 배선상태 및 누전여부, 누전차단기 정상 동작여부, 개폐기 및 개폐기함 시공상태, 안정기 취부상태 및 불량여부, 기타 각종 기술기준 적합여부 등을 점검 처리했다. 5천37개소중 1천74개소를 점검해 한국전력공사에서 24개소를 시정하고 231개소는 시청에 통보했다.

또한, 저소득층 고효율조명기기 지원사업도 추진하여 실질적인 사회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전력의 안정적인 사용에 대한 사회적 지원 요구 증대와 저소득층의 거주공간에 대한 전력 효율개선을 통해 합리적인 에너지 사용 유도 및 에너지 비용 절감혜택을 부여하기 위함이다.

현재 저소득층 가구 350호를 대상으로 9월10일부터 10월12일까지 고객만족도 제고 효과증대 및 협력업체 여건을 감안해 추진하고 있으며 재원은 전력산업 기반기금으로 호당 16만9천원씩 350호 5천915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지원내용은 저효율 조명기기를 고효율 조명기기로 무상교체하고 전선테이핑, 불량 누선차단기 교체 등 불량설비 간이보수도 시행해 나가고 있다.

이영승 단장은 "직원들의 정성을 모아서 추진하고 있는 순수한 사회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인 경제적 안정을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목회단상

우리민족의 멋

김 창 성
내촌감리교회 목사

민족마다 자기네의 독특한 문화와 멋을 찾고 자랑으로 여긴다. 멋은 갑자기 만들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또한 쉽게 바꾸어지는 거도 아니다. 따라서 역사가 오랜 민족일수록 풍기는 멋도 뚜렷하다. 영국이나 스페인이나 중국인의 멋이 뚜렷한데 비해 미국인의 멋이 애매한 것은 전통과 멋이 정비례함을 말해주는 좋은 예이다.

우리의 멋은 어떻게 표현될 수 있을까? 한마디로 소박(素朴)함이란 표현을 써본다. 소박이 뭐냐고 물으면 그것 역시 대답하는 사람에 따라 수없이 많은 해설이 나오겠지만 은근함과 구수함을 자랑하고 싶다. 이 두 가지가 모두 외국어로는 옮기기 힘든 한국말들이다.

은근함은 따뜻함이 깔려 있는 조용함이다. 화술(話術)에 능하고 대화에 재치 있는 것이 사교에 도움이 되지만 말은 많지 않아도 은근한 멋을 풍겨주는 사람이 매력 있다. 요즈음 젊은이들이 배우자를 고를 때 무조건 활발한 사람을 내세우는데 그것은 한국의 멋이 산업사회의 기계화 문명 속에 가리워지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잇다.

온화한 마음, 진실한 행동, 정직한 생활이 은근함을 만든다. 그런 사람과는 누구나 친구가 되고 싶어하는 끌어당기는 멋이 있는 것이다.

구수함은 꾸밈없는 텁텁함이다. 그것은 숭늉의 맛 같다. 숭늉의 맛은 한국사람이 아니면 도저히 모른다. 짜릿한 코카콜라 맛도 아니고 달콤한 포도주의 맛도 아니다. 만일 외국인이 숭늉을 마시면 전연 맛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숭늉의 구수함은 가공(加工)되지 않은 맛이다. 사람도 구수한 사람은 꾸며지거나 위장(僞裝)되지 않은 사람이다. 실수도 솔직하게 하고 자랑할만한 일도 그다지 광고하지 않으며 있는대로 내놓는 사람은 정말 멋있는 사람이다. 아니오와 예를 분명히 하는 사람이 아닐까 성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으로 교훈 하신다.

마태복음5장37절에서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고.

문의) 031-532-2489

비상구 불량 신고하면 포상한다

포천소방서, 슈퍼등 상품적치로 비상구 막는 것 방지

포천소방서(서장 이보형)에서는 추석을 앞두고 대형판매시설, 버스터미널, 철도역, 극장, 관람시설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에서 비상구가 불량하여 신고하면 소방서장의 표창과 소정의 기념품을 주기로 했다.

피난시설(비상구, 출입문, 복도, 계단) 및 방화시설(방화문, 방화셔터)을 폐쇄하거나 잠궈 놓거나 훼손한 행위, 물건을 쌓아놓거나 장애물을 방치해 작동상 문제가 있는 행위 등을 발견하면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한 후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 홈페이지 "비상구 불법사례 신고센터"에 접속한 후 신고하면 된다.

신고된 장소는 포천소방서 안전진단팀에서 현장 방문하여 조치할 계획이며 경기도 전 지역에서 신고된 사항은 관할지역 소방서에 통보하여 동일한 혜택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농협중앙회 포천지부 송우지점이 9월13일 개점식을 갖고 영업을 시작했다.

"最高의 금융서비스 제공에 최선"

농협중앙회 송우지점 개점식

농협중앙회 포천지부 송우지점이 9월13일 개점식을 갖고 영업에 들어갔다. 송우지점 3층에서 진행된 개점식에는 고조흥 국회의원과 박윤국 포천시장, 이강림 포천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경기도의원, 시의원, 기업인 및 농협관계자, 고객들이 참석했다.

새롭게 단장하고 영업을 개시한 송우지점은 대지 1천211㎡(366평), 연면적 1천76㎡(325평/3층)으로 건축되었으며 2006년11월 공사를 착공해 2007년8월에 완공했다.

기존 농협에 비해 365자동화 코너 확충을 비롯해 빠른 창구, 상담창구, PB룸 구별, 고객휴게실, 여신상담실 등의 편의시설을 갖춘 현대식 건물로 신축됐다. 또 고객들에게 불편을 주었던 주차장을 확충하고 식당 및 회의실 등을 확충했다.

경과보고에서 김명식 송우지점장은 2005년5월 농협사무소 환경개선 계획서가 확정된 이후 2006년3월 전국 3개 사무소 포함 송우지점 신축확정, 2006년4월 설계서 심의와 고객의견 수렴, 2006년10월 신축공사 발주, 2006년11월 임시지점으로 이전, 2007년7월 본건물 완성 및 임시 사용등록 후 영업시작, 2007년8월 준공검사에 이어 13일 개점식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황일현 농협중앙회 포천시지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농협은 국민의 신뢰 속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농업인과 고객의 행복을 위하여 최고의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구함으로 삶의 질 향상에 공헌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황 지부장은 "농협은 순수하게 농민이 출자한 민족자본은행으로 송우지점 개점으로 고객들에게 최선을 다해 모시겠다는 다짐의 자리"라고 말하고 "고객들에게 최고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승완 기자 forme65@paran.com

투명성 제고헌장 實踐 서약식

포천소방서, 高品質의 소방서비스 제공 위해

포천소방서(서장 이보형)는 9월12일 소방서 3층 대회의실에서 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경기소방 투명성 제고 헌장 실천 서약 및 이행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결의대회는 소방행정의 투명성을 한 단계 더 높여 고객에게 만족과 감동을 주는 고품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하여 일류행정을 실현 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이보형 포천소방서장은 직원들에게 "국민의 존중과 사랑을 받는 믿음직스러운 안전지킴이로서 최고·최강의 소방관상확립을 위한 개인역량 극대화, 불합리한 관행을 거부하고 지속적인 자정활동을 통한 투명한 소방행정 구현을 당부"하고 "최근 재난현장에서 연이어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현장활동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줄 것과 서로 믿고 존중하며 현장에서 동료의 안전을 돌보는 품격 높은 직장문화 만들기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포천소방서는 9월12일 소방서 3층 대회의실에서 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경기소방 투명성 제고 헌장 실천 서약 및 이행 결의대회를 가졌다.

성묘객 이런 사항 알아 두세요

포천소방서, 성묘객 안전사고 예방대책 제공

포천소방서(서장 이보형)는 가을철 산행인구가 늘어나고 추석 및 추수시기에 벌초, 성묘객 등 야외활동 주민이 증가하는 때 각종 예초기 사고 및 교상(咬傷)환자 발생에 주의할 것을 당부 하고 있다.

지난 8월부터 현재까지 사고발생 현황을 보면 벌쏘임 15건 16명, 뱀물림 4건 4명, 예초기 12건 13명, 농기계안전사고 4건 4명, 기타 벌집제거는 63건등의 구조·구급활동을 전개했다.

가을철 야외활동시 행동요령으로 포천소방서는 다음과 같이 안내수칙을 지킬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있다.

□ 예초기 안전사고 발생시

▶상처가 났을 경우 상처를 물로 씻고 소독약을 바른후 수건으로 감싸고 병원에서 치료한다.

▶돌등의 이물질이 눈에 들어 갔을 경우 고개를 숙이고 눈을 깜박거려 눈물이 나도록 해 이물질이 자연적으로 나오도록 한다.

▶손가락등이 절단되었을 경우 생리식염수나 물로 씻은 후 멸균거즈로 싸서 비닐봉투나 프라스틱용기로 포장해 물을 채운후 얼음을 넣어 신속히 병원으로 간다.

□ 뱀물림사고 발생시

▶뱀에 물릴 경우 눕혀 안정시킨 후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물린 곳에서 5~10㎝ 위쪽을 끈이나 고무줄 손수건등으로 묶어 독이 퍼지지 않도록 한다.

▶입에 상처가 없을때는 물린 부위를 약간 절개하고 입으로 독을 빨아낸다.

□ 벌쏘임 안전사고 발생시

▶벌침은 전화카드나 신용카드 등으로 피부를 밀어 빼는 것이 좋다.

▶통증부위에 얼음찜질을 하고 스테로이드 연고를 바른뒤 안정을 취한다.

▶과민반응에 의한 쇼크 발생시 편안하게 뉘어 호흡을 하도록 하며 119에 신고한다.

□ 유행성 출혈열등 안전사고 예방은

▶야외 활동시 반드시 긴옷을 입고 장화 장갑등 보호 장구를 착용한다.

▶잔디나 풀밭에 앉거나 눕지 않으며 작업후에는 반드시 목욕하고 입은 옷은 세탁한다.

▶성묘나 야외 활동후 1~3주후 발열, 오환, 두통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서둘러 의사를 찾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특별기고

통일 후 토지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⑰

통일 후 토지 소유권 정리를 위한 제언-2

서 희 석
대성지적GIS기술단
대표이사

북한의 체제 전환과 남북한의 경제 통합은 통일 시점까지의 북한 경제의 변화, 통일 과정, 통일 한국의 정치·경제적 비전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좌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통일이 실제 어떤 방식으로 전개될 것인가가 분명하지 않은 현시점에서 통일에 대한 대비는 가상적인 시나리오를 전제로 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독일의 통일, 구사회주의 국가의 체제 전환, 중국의 개방정책과 같은 국내외 정치·경제적 상황을 감안하여 볼 때, 이미 구시대의 유물이 되어 버린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의 고수보다는 시장경제 체제로의 변화 가능성이 크다.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건설과 같은 부분적 개방 도시의 사례가 귀감이 되고 있다.

분단 반세기 동안 남과 북은 서로 다른 이데올로기 하에 각기 다른 경제 체제로 사회를 운용하여 왔기에 지금까지 완전히 다른 사회 체제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범세계적인 탈냉전 시대의 도래로 남과 북은 과거의 극단적 대립을 지양해야 할 뿐만이 아니라 과거를 청산하고 하나의 통일국가를 형성하여야만 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

남북한은 대립적인 체제 하에서 반세기를 지내는 동안 완전히 이질적인 사회제도가 뿌리를 내리고 있기에 그 차이를 줄이기 위한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

두 사회의 통합을 위해서는 각종 사회제도를 통일시켜야 하나 대립적인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사회제도가 상충된다.

그 중에서 특히 사유재산권 제도는 두 체제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는데, 사유재산의 인정 여부가 바로 그것이다.

남북한의 소유제도가 처음에 토지 문제에서 출발했던 것처럼 통일 후 토지의 소유권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독일의 경우처럼 토지 문제는 통일 후에도 정비 과정에서 후유증이 클 것이기 때문이다. 상이한 경제 체제로 토지제도가 근본적으로 다르므로 통일을 대비하여 새로이 토지제도의 정비가 반드시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에 대비하여 준비해야 할 과제는 매우 광범위하며 추상적이다. 통일은 사회 전반의 모든 부분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관련 범위가 매우 넓고 통일 방법도 다양하므로 어느 방법이 옳다고 단정지어 말할 수 없다.

즉, 정치·경제·사회·문화·군사·외교 등 대내외적으로 통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는 매우 다양하며, 이러한 요소들은 통일에 의하여 새로이 정립될 것이다.

남북한의 통일이 국제 정세에 미치는 영향은 군사 분야에서 가장 먼저 나타날 수 있다. 한국전쟁으로 인한 분단은 국제적인 냉전 구도 속에서 남과 북에 군사력 증강 경쟁을 야기하였다.

그러나 남북통일 후의 군사력은 전 세계에 위협적인 존재가 될 것이다. 이는 통일의 목적이 아닌 단지 통일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부산물일 뿐으로 진정으로 중요한 문제는 우리 민족의 결합이다.

그러나 통일은 독일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통일 비용, 사회 통합 시간의 지연 등 엄청난 대가를 감수해야만 한다. 우리의 경우도 통일 비용, 이념 통합 등 많은 난관이 예상되지만 특히, 재산권 문제가 큰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이다.

물론 국유화된 기업도 재산권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나 그 중에서도 토지 소유권 문제가 가장 중요한 연구 대상이다.

마르크스는 공산주의 사회의 역사적 필연성을 굳게 믿었고 그의 미래 사회 구상을 따라 많은 사회주의 국가들이 건설되었지만 구소련 해체 이후 많은 사회주의 국가들이 무너졌고 1990년에는 동서로 갈라졌던 동독이 통일되었다.

이제 한반도만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아 있다. 월남의 경우 1975년에, 예멘의 경우 1991년에 통일되었다. 전 세계에서 사회주의를 고집하고 있는 나라들은 한결같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

카스트로의 쿠바가 그렇고 북한은 더 궁핍한 처지에 놓여 있다. 붕괴했거나 현재 붕괴 과정에 있는 사회주의 국가들은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이러한 몸부림은 사유제의 부활이 필연적이다.

통일 독일의 경우 동독의 사회주의적 소유제도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방법을 모색했었다. 그 하나는 지금까지의 사회주의적 소유제도를 전제로 국유재산을 국민에게 매각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사회주의적 소유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분단 이전의 소유제도와 소유권을 회복시키는 것이었다. 독일은 후자를 택했는데 바로 구 소유자의 손을 들어주는 법적 해결이었다.

그러나 소유권 반환 원칙은 구동독 지역의 경제 재건과 경제 지체의 최대 요인이 되고 있다. 재산권의 재사유화 문제는 분단 이전의 역사적 상황, 등기 부재 문제, 유대인 문제와 관련된 데다가 많은 비용과 시간을 필요로 하고 있다. 게다가 동독인들은 자위단을 구성하여 '집 사수 투쟁'까지 벌였고 결국 반환 원칙은 투자 우선과 보상 우선 정책으로 전환되었다.

우리의 경우 어떤 방식으로 통일이 될 것이며 그 시기는 언제가 될지, 통일 비용은 얼마나 될지 예측하기 힘들다. 허나 통일에 따르는 토지 소유권 문제는 과거의 역사, 국가의 정통성, 수많은 이해 당사자들 간의 감정 등과 관련되어 있어 최대의 현안이 될 것은 분명하다.

포천시가 주최하고 포천시 여성단체협의회가 주관하는 제2회 포천시여성단체 한마음체육대회가 박윤국 포천시장과 이강림 시의회의장, 여성단체협의회원 등 3000여명이 참석해 12일 포천시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됐다.

포천 여성 진정한 和合의 場

여성단체협의회 한마음 체육대회

포천시가 주최하고 포천시 여성단체협의회가 주관하는 제2회 포천시여성단체 한마음체육대회가 박윤국 포천시장과 이강림 시의회의장, 여성단체협의회원 등 300여명이 참석해 12일 포천시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됐다.

그동안 여성관련기관 및 단체 상호 간의 통합 연계망 구축으로 지역사회 발전의 기여와 여성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한 화합의 장이 된 포천시 여성단체협의회(회장 김순임)는 이번 체육대회를 그동안 소외되었던 단체 및 여성들이 모두 참여하는 진정한 화합의 장이 되도록 추진키로 했다.

이날 행사내용으로는 식전행사로 난타공연과 스포츠댄스를 시연해 참가자들의 흥을 돋았으며 개회식에 여성발전 유공자에 대한 시상이 있었으며 본 행사에는 명랑운동회 및 노래자랑으로 여성단체회원간 단합의 시간을 가져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여성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여성지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여성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로 포천의 미래를 앞당길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